

빅리그 성사 'Kim의 격돌'... 김하성 판정승

전북 복싱계에 '단비'

고창 영선고 복싱부 창단 6명 구성
올림픽 메달리스트 홍성식씨 지도

김하성 밀어내기 볼넷에 김광현 강판

빅리거 신분이 된 후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과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첫 만남에서는 '동생 김하성이 좀 더 강한 인상을 남겼다.

김광현은 1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펠트 파크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 선발 출전했다. 김하성이 샌디에이고의 7번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라인업에 들면서 두 선수의 미국 무대 첫 맞대결이 성사됐다.

김광현은 3회말 선두타자로 등장한 김하성을 마주했다. 초구는 볼, 2구째 낮은 슬라이더에 김하성의 방망이가 날카롭게 돌아갔다. 멀리 뺏아나간 타구는 외야 좌측 파울 라인을 살짝 벗어났다.

김광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김하성은 아쉽게도 표정을 지었다.

승부는 풀카운트로 이어졌다. 김하성은 3B-2S에서 두 차례 커트호형 김광현을 끈질기게 물어늘어졌다.

8구까지 계속된 혈투에서 웃은 이는 김광현이었다. 김광현은 바깥쪽 체인지업으로 김하성의 헛스윙 삼진을 이끌어냈다.

두 번째 만남은 더욱 긴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김광현이 2-1로 쏘신 4회 1사 만루에서 김하성이 타석에 들어섰다.

이번에는 김하성이 웃었다. 제구가 흔들리던



①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김광현이 16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펠트 파크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4회 말 교체되기 전 3루수 노런 이레나도와 함께 마운드에 서 있다. 김광현은 3¼이닝 2피안타 3볼넷 3탈삼진 4실점(1자책)을 기록했다. ②같은 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이 2021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경기에 2루수로 선발 출전해 2회 수비하고 있다. 김하성은 3회 말 공격에서 김광현에게 삼진당했다.



김광현을 상대로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냈다.

김하성은 2B-2S에서 김광현의 승부구 2개에 모두 반응하지 않았다. 스코어는 2-2.

김하성과의 승부를 끝으로 김광현은 마운드를 내려갔다. 김하성을 범타로 요리했다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다. 첫 타석에서 삼진으로 돌아선 김하성은 4회 밀어내기 타점으로 설욕에 성공했다.

두 선수는 KBO리그 시절에도 SK 와이번스

(SSG 전신)와 키움 히어로즈를 대표하는 선수들도 자주 부딪혔다. KBO리그 성적은 타율 0.338(30타수 10안타), 4타점으로 김하성이 조금 우위를 보였다.

김광현을 끌어내린 김하성은 6회 선두타자로 나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8회에는 방망이가 아닌 눈과 발로 팀에 기여했다. 또 한 번 선두타자로 선 김하성은 바뀐 투수 알렉스 레예스에게 볼넷을 얻어냈다. 풀카운트에서 낮은 코스로 향하는 빠른 공을 참

아냈다.

존 안드레올리 타석에서는 2루를 훔쳤다. 세인트루이스 포수 아더어 몰리나가 빠르게 송구했지만 김하성의 슬라이딩이 좀 더 빨랐다.

시즌 3호 도루.

2타수 무안타 2볼넷 1도루를 기록한 김하성의 타율은 0.198에서 0.190(84타수 16안타)으로 하락했다. 샌디에이고는 세인트루이스를 5-3으로 꺾고 시리즈 3연전을 싸움기 했다.

/뉴시스

“태권도 발전 협력 노력”

오응환 신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취임

오응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사진)은 취임 일성으로 “태권도 발전을 위한 협력과 태권도원 활성화, 지역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응환 이사장은 취임 이후 첫 부서장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힘든 가운데 태권도인들의 어려움도 말할 수 없이 크다. 태권도 사범님 등 도장을 돕기 위한 활동에 우리 재단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국기원, 대한민국의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등 태권도 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태권도진흥재단 발전을 위해 태권도계 일로남들을 찾아 고견을 들을 것임을 강조했다.

태권도원 활성화와 관련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한 가운데 코로나19에 맞는 여행 상품을 개발해 관광지로서의 태권도원 매력을 부각하는 한편 태권도 대회와 전지훈련, 연수 등 태권도원을 활용한 태권도 행

사와 훈련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전북도 무주군 단체장을 조만간 만나, 태권도원이 관광 및 태권도 성지로서 기여할 부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전라북도 발전에 재단이 도움되는 방안을 확대하기 위해 논의를 나누겠다”라고 말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2007년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를 창립하며 겪은 여러 어려움도 조직원들과 함께 이겨낸 바 있다”라며 “우리 재단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막힌 부분은 뚫고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조직 내 작은 권위주의라든가 있다면 이를 타파하는 등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이자 국가 태권도 보급과 보존 등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여주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오응환 이사장은 취임 후 첫 결재로 재단 혁신을 위한 ‘조직개혁 TF 활동’을 처리하며 태권도진흥재단 발전과 태권도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개혁의지를 내비쳤다. /무주=전문성 기자

휘장 상품화로 아·태 마스터스 입지 'UP'

조직위, 내달 3일까지 공식 상품화권자 공모... 봉제·의류 등 6개 품목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송하진)는 대회 휘장을 사용해 기념품 등 상품 개발·제조·판매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공식 상품화권자 모집을 오는 6월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품화권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공식 상품화권자 명칭 사용권과 휘장·심볼마크, 마스코트 사용권을 부여받고 그 대가로 휘장 사용료(로열티)를 조직위원회에 납부하는 사업이다.

상품화권 대상품목은 봉제류, 완구류, 의류, 문구류, 가방류, 생활용품 및 잡화류 등 총 6개 품목군이고,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다.

이번에 모집하는 대회 공식 상품화권자는 2022년 1월부터 상품화권자 자체 플랫폼 및 자체 보유매장을 통한 온·오프라인 굿즈(상품) 판매와 더불어 대회 기간 중 14개 시·군에 설치될 굿즈마켓(기념품 판매소) 15개소에 대한 위탁운영자 역할도 병행하게 된다. /정은성 기자

참가 자격은 공고일 현재 해당 품목군의 품목(전체 또는 일부)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해당 품목군의 품목(전체 또는 일부)의 제조 또는 판매업, 라이선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는 공개 입찰을 통해 ▲최소·러닝 로열티, ▲국내·외 주요행사 공식 상품화권자 사업 수행실적, ▲상품개발·유통·판매 전략, ▲굿즈마켓 운영방안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거쳐 상품화권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수준 높은 디자인과 소장 가치가 높은 기념품 개발·판매는 물론 대회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상품화권 사업의 목표로 정하고, 상품기획이나 디자인 개발 능력을 지닌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대회 공식 홈페이지(www.apmg2023.kr)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위드앤씨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